

#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본문: 시편 91: 1-16

- 1 [지극히 높으신 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2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3 그분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4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나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5 네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 천 명이 네 곁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8 오직 너는 네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보리로다.  
9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10 어떤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네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2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14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15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16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 1. 고난 중 성도의 간증

- A. 현재 진행 중인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중에 많은 성도들이 시편 91 편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고 있음을 봅니다. 2013 년 초에 제가 아프카니스탄에 파견 근무하러 출발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이 시편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줄 것을 확실히 말씀하셔서 저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매일 탈레반의 위험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자주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곳에 있던 기간 내내 평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있던 크리스찬들과 함께 성경 공부와 예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 B. 이 시편은 세분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 절은 시편 기자의 서론 구절이 있고, 2 절은 고난에 처한 성도의 간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 절~9 절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시편 기자의 권면의 말씀이 이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 절~16 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표현하시는 사랑과 보호의 의지가 시편 기자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요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뵈고 대화하며, 하늘 왕국의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장로들중 몇 사람 및 천사들과도 대화하면서 계시 행위가 진행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생활 속에 이와 같은 대화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성도는 대언자인 목회자나 전도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간증을 표현하고 그들의 권면을 들으면서 마음에 격려와 힘을 받으며, 또한 영적 시력을 새롭게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도에게 향하여 하시는 사랑과 보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확증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자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밀접하게 교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그리고 사역에 관한 분명한 시력을 갖게 되며, 이를 성도에게 전달함으로써 부름 받은 사역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 C. 대언자가 1 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밑”에 대하여 소개 합니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성도의 은밀한 영적 생활, 즉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을 닫은 골방’과 같은 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자신과 하나님과 은밀하게 보내는 기도와 묵상의 장소를 얘기 합니다. 이런 곳에 거하는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 즉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있다고 얘기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다음과 같이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37]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 D.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특별한 도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통치하던 고을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왕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은 거룩함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대언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사를 통하여 시리아 군대, 바빌로니아 군대, 그리스 군대, 로마 군대, 회교도 군대들, 십자군 등 외세에 의해 점령과 파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의 비운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있다고 비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신 포용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한탄하신 것입니다. 주변의 외세가 아무리 강해도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고 신자들을 핍박하다가, 주후 70 년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중국에는 나라까지 잃고 온 세계에 유리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 2. 전능자의 그늘 밑

- A. 대언자는 성도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언급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밑에 있는 성도가 사냥꾼의 올무, 갑자기 날아드는 화살,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 그리고 대낮에 횡행하는 사망으로부터 안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인생 길에 놓인 여러 위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밑에 있는 성도는 이런 올무를 피할 지혜를 받아 우선 올무가 있을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올무에 걸려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역병이 번지는 양상은 마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사물을 분간하기

힘든 것처럼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역병을 피할 지혜도 받아 조심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B.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아직 한국과 미국 사회에 많이 있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는 다행히 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혜에 힘입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형편이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정부의 지침, 즉 집에 있고 외출을 금지하며, 꼭 외출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안전 거리를 지키며, 소독을 철저히 하여 이 사망의 역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대낮에 횡행하는 사망이란 교통 사고, 총기 사고, 기타 사고 등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당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의 위험을 지칭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우리 성도는 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에 따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C.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에 힘 입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축복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안전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성도들을 보호하라는 미션을 주신 것에 있습니다. 11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를 보호할 책무를 천사들에게 주시는 것에 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런 보호하심을 주실까요? 천사의 보호함을 받는 성도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있는 성도,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그런 특별한 보호를 명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마치 대통령의 가족에게만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원들이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년간 파견 근무 기간 중에 우리의 숙소 기지에서 다른 기지로 이동하게 되면 호송하는 군인들이 무장하고 운전하는 장갑 차량을 타고 안전하게 이동하였습니다. 심지어 휴가로 미국에 오고 가기 위해 카불 공항으로 왕래할 때에도 그들의 호송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안전하게 파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는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를 입어 갑자기 생기는 모든 위험에서 생명을 지키며, 안전하게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 3. 고난 중 구원

- A.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항상 형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 광야로 가셔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40 주야를 굶주리심으로 매우 허기지고 피절한 상태로 시험 당했습니다. 시험 중에 사탄이 인용한 성경 구절 중 하나는 바로 12 절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성도를 "받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아라" 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14 절과 같이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성도를 보호하시겠다는 의도를 가지심을 성도가 알더라도 일부러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 B. 15 절은 "고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구원하고 존귀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합니다. 어떤 잘못된 전도자들은 소위 '번영 신학 [Prosperity Gospel]'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호도합니다. 이는 잘못된, 거짓 복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평생을 가난한 성도, 집 없는 전도자, 고난 받은 메시아로 살으셨고, 십자가에서 큰 죄인처럼 죽음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 중에서 그 분을 구원하시어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존귀함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성도 역시 고난이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입어 부활한 몸으로 하늘 왕국에 가서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크리스찬의 축복이며, 이 축복을 향한 살아 있는 소망을 지니고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 C.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병과 인생의 여러 위험과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생각과 특별한 보호하심의 배려를 믿고 마음에 흔들림 없는 믿음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함께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바랍니다. 아멘.